

회원대학 소식

● 공주대

공주대(총장 김재현)는 2009년 9월 29일(화), 김재현 총장을 비롯한 충청남도내 9개 병원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충청남도 각 시·군의 거점 병원으로 논산 백제종합병원을 비롯한 서산중앙병원, 예산삼성병원, 천안충무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9개 병원이다. 공주대는 협약 체결로 향후 약학대학 설치를 대비하여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교직원과 재학생 가족들이 이들 병원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력체결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및 연구의 상호 교류, 교직원의 복리 및 후생복지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광운대

광운대(총장 김기영)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교양의 새 지평, 학문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석학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연회는 미래사회에서의 '교양학'의 개념·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교양 교육의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김기영 광운대 총장은 "최근 들어 대학 학문의 세분화·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각 학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문의 본질·가치가 희석되고 학문 간 소통이 단절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석학초청 강연이 교수·학생이 어우러져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학문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고려대

고려대(총장 이기수) 민족문화연구원은 제563돌째 한글날을 맞이하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출간하고 2009년 10월 8일(목),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993년부터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17년이 걸쳐 완성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약 39만 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표제어 및 언어 정보를 추출하고 검색·집필·교열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적용하는 진일보한 편찬 방식으로 집필된 것으로 대학 연구소 자체 역량

으로 편찬한 것은 국내 최초이다.

● 금오공대

금오공대(총장 우형식)는 2009년 10월 19일(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건설링대학원 및 R&D센터 개설사업」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이 현장중심의 건설링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링 연구개발체계구축을 위해 영·호남 및 강원·제주 지역 소재대학을 대상으로 1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출된 6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실태조사, 정량평가 및 발표평가 등 3차에 걸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난 9월 초 금오공대가 국립대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지식서비스 건설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링 연구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수도권 2개 대학에 이어 올해 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금오공대는 향후 5년간 모두 25억 원을 지원받아 건설링대학원과 함께 부설 연구소인 건설링 연구개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 동국대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학생이 주

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객서비스(CS) 경영을 도입하고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를 공개하는 등 선진 대학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스피드 있는 경영'을 강조하며 동국대의 미래비전, 발전전략을 담은 '108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8프로젝트 내용 중에는 국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전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연봉제를 실시하는 파격적인 혁신안이 담겨 있다. 또 총장과 단과대학장이 목표관리제 형식의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신입교수 채용을 포함한 교수인사 및 단과대 예산 운용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단과대학장에게 부여하는 분권형 자율경영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같은 새로운 대학경영 방식이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동신대

동신대(총장 정기언) 언어치료학과가 언어치료사 2급 자격시험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거둬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 언어치료학과(학과장 김성수 교수)는 지난 7월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언어치료사 2급 자격시험에 36명이

응시, 30명이 합격해 83.3%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을 27% 가량 상회하는 것이며, 전국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자격시험에는 전국적으로 780명이 응시, 43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6.2%였다. 특히 높은 자격시험 합격률에 힘입어 올해 2월 배출된 첫 졸업생 22명 가운데 95%인 21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약 인기 학교로 떠올랐다.

● 부경대

부경대(총장 박명언) 경영대학원은 주말 석사과정인 글로벌경영학과를 신설, 오는 11월 9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될 글로벌경영학과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정보 관리 등의 경영이론과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전문경영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학과는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토요일을 활용,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한편, 지난 8월 부산 지역 내 대학 최초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한 부경대는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를 비롯 야간 석사과정인 경영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경제학과, 세무 관리학과, 관광경영학과 등 6개 학과에 130명의 신입생을 2009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 부산대

부산대(총장 김인세)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와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가 공동 실시한 2009년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를 차지했다. 부산대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대학 순위가 지난해 511위에서 371위로 140계단 급상승함으로써 국내 대학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는 학문분야별 순위에서 생명공학·의학 154위, 공학·IT 230위, 자연과학 261위, 사회과학 275위 등을 기록하며 4개 분야에서 세계 30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생명공학·의학 분야는 200위권에 들어갔다. 이 같은 성과는 교수들의 끊임 없는 노력, 대학 당국의 대대적인 교육·연구인프라 확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진흥책 도입 등 꾸준한 투자와 총장의 리더십 등이 어우러진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 서울여대

서울여대(총장 이광자)와 기후변

화센터는 오는 2009년 10월 28일(수), 학내 잔디광장에서 저탄소 녹색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서울여대 에코캠퍼스 STOP CO2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여대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강의를 교양필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에코캠퍼스 조성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대학을 구현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며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설정해 꾸준히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 성균관대

성균관대(총장 서정돈) 번역·테솔대학원(원장 이영옥 교수)은 미국 하와이대학 Second Language Studies (SLS)학과와 2009년 10월 15일(목), 학문·교육 및 문화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성균관대 테솔 프로그램 졸업자들은 SLS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졸업학점(6학점)을 인정받으며, 본인이 원하면 3~4주 동안 SLS 석사과정을 청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두 대학의 교원교환 협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2009년 10월 19일(월)에는 하와이 아태교류센터(CAP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 Hawaii)

와도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로 성균관대 TESOL의 국내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동대

안동대(총장 이희계)는 2009년 9월 30일(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신설 인가를 받음에 따라 2010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 승인은 안동이 유교, 불교, 민속전승문화 등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탈춤 축제, 안동민속박물관, 하회마을 등 문화인프라도 뛰어나며, 안동대학교가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여건이 상당 수준으로 축적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에는 음악·연극 공연, 축제이벤트, 박물관·전시관, 테마파크 등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공간스토리텔링, 축제이벤트, 문화마케팅 등 총 3개 분야의 전공을 두고 현장관리자(Supervisor)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주간과정 5학기제로 철저하게 실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국국제대

한국국제대(총장 고영진)는 2009년 10월 22일(목), 한국음식관광협회 경남도지회와 외식경영학과 계약학과 운영 등에 관해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각 학년별 40명 안팎의 외식경영학과를 계약학과로 운영키로 하고, 2010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하는 등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학위과정으로 내년 3월에 개설되는 외식경영학과는 △외식경영 및 창업중심 관련분야 △식·음료관련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한 외식산업 경영관리 지식 △현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인재양성 및 재교육 등에 관한 교과과정으로 이뤄진다.

◎ 한국외대

한국외대(총장 박철)가 연구·개발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FLEX (Foreign Language EXamination)가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했다. FLEX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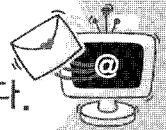
국외대가 지난 199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1999년 개발된 외국어능력시험으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총 7개 언어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FLEX는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채용, 인사, 파견 등의 평가 자료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변리사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언론사, 방송사, 금융사 등에서 채용, 승진, 해외파견 자료로, 입시, 학점인정, 졸업인증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기관과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공대

한국항공대(총장 여준구)는 학·군 간의 인적교류 및 상호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2009년 9월 9일(수) 공군본부에서 공군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여준구 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양 기관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학·군 협동 프로그램 운영,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항공우주 분야의 교환교수제도 운영 등 인적 자원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번 협정체결로, 한국항공대와 공군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실무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공군에서의 항공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실무를 이해하도록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 회원 대학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회원대학 소식게재 신청
infor@kcue.or.kr

기사를 보내주시면 회원대학 소식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http://magazine.kcue.or.kr>

「대학교육」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
대학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홈페이지 - 지난호 보기
메뉴에서 지난 대학교육 원고 및
기사를 pdf와 e-book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